

“DJ와 5·18묘지 참배하고 싶다”

김영삼 前대통령 단독 인터뷰...“대선 관심 많다” 개입 시사

▶인터뷰·관련기사 5면

김영삼 전 대통령은 22일 “지역화합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 이든 하겠다”며 “DJ(김대중 전 대통령)와 국립5·18민주묘지를 가고, 부산 민주공원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5·18기념재단과 5·18단체의 초청으로 이날 광주를 방문한 김 전 대통령은 광주일보와 단독 인터뷰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 “언제든지 좋다. 그것이 국민의 바람이고, 그렇게 한다면 국민들 또한 큰 의미를 부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또한 “2012 세계박람회 여수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오는 7월 중 여수와 거제도를 잇따라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나의) 이번 광주 방문과 국립5·18묘지 참배가 지역감정 해소와 동서화합, 국민통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김 전 대통령의 광주 방문이 지역주의 극복과 동서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전 대통령은 차기 대선과 관련 “50년동안 정치를 해온 정치인으로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혀 정치에 관여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경선 규칙을 둘러싼 한나라당 내분과 관련해서는 “당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국민의 지지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순리를 지켜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헌화·분향한 뒤 목욕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5·18 묘지 방문은 지난 1987년 망월 묘역을 찾은 이후 20년 만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6차 회담과 남북관계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은 “6차회담은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 남북관계나 동북아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이며, 그 이외의 대안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정상회담은 때가 되면 필요에 따라 할 수 있으나 지금은 대통령 선거를 7개월여 남겨두고 있다”며 “회담이 선거에 이용되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아울러 “남북관계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야 하며 일방적 퍼주기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통령은 5·18 발포 책임자 등 정확한 진상규명에 대해 “무슨 일이 있어도 진상규명은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큰 차원에서 볼 때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해 이 두 사람을 구속시키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1983년 5·18 3주년을 맞아 결행했던 23일간의 단식에 대해서는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저항해 오

로지 민주주의를 되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돌입했던 것”이라며 “그 것이 이 나라의 민주세력을 잡아서 깨웠고, 이후 민주협과 신한민주당으로 이어지는 민주화투쟁의 큰 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국립묘지 승격 이후 처음으로 5·18 민주묘지를 참배, 기념식수를 한 뒤 광주 남구 프라도호텔로 이동해 5·18단체로부터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정부, 울 보리 매입가 2~4% 인하

올해 정부의 보리 매입가격이 작년보다 2~4%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전국 보리재배 면적의 57%를 차지하는 전남지역 3만2천여 보리재배 농가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농림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2007년산 보리 정부 매입가격 결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는 다음달 초부터 7월말까지 농가와 농협이 약정한 17만1천톤의 보리를 지역농협을 통해 사들일 예정이다. 1등급 기준 겉보리와 쌀보

리의 매입가격은 40kg당 각각 3만 860원, 3만4천260원으로. 이는 작년에 비해 각각 2%, 4% 낮은 것이다.

따라서 전국 보리재배 약정물량 17만1천톤 중 60%인 9만8천톤을 생산해 900억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됐던 전남지역 농가들의 손실이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2030년 전남 10명중 3명 노인

광주 인구 2014년부터 줄어...4년 뒤 국민 2명중 1명 수도권 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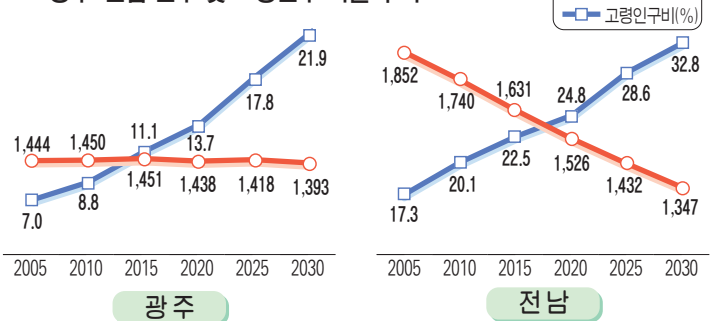
저출산·고령화 기조로 인해 오는 2030년에는 전남지역 인구 10명 가운데 3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수도권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2011년부터는 국민 두명 중 한명 이상이 수도권 지역에 거주해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광주시의 인구는 2013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되고, 전남도의 인구는 오는 2030년 134만명대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이같은 사실은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결과’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30년에는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특히 전남의 경우 2030년에는 고령 인구가 전체의 32.8%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 100명중 33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셈이다.

■광주·전남 인구 및 고령인구 비율 추이



전남은 또 같은 기간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고령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노인 부양비율이 57.5까지 치솟게 된다. 이는 전국 평균(37.7)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57명 이상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

광주도 저출산·고령화 기조가 심화되면서 2030년 고령인구가 전체의 21.9%에 달하게 된다. 광주 인구도 2012년 145만2천명으로 정점에 달한 뒤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2030년 생산

가능인구가 65.4%까지 떨어지는 등 인구 정체현상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반면 수도권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돼 광주·전남의 인구 감소 추세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인구는 2030년 1천 404만8천명까지 증가하면서 2005년 현재 48.2%인 전체 인구 대비 수도권의 인구 구성비가 2030년에는 54.1%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정부, 기자실 통폐합...중앙·과천·대전청사 3곳에 합동브리핑실

정치권·학계·시민단체 일제 비난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현재 정부부처 내에 마련된 37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권역별로 3개로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학자, 시민단체 등은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기사 3면〉

정부의 이번 조치로 외교·문화·정통·건교·예산처·국세청 등 단독청사를 사용하는 행정부처의 브리핑실은 정부 중앙청사 또는 과천청사의 통합

브리핑실로 합동 운영된다. 정부중앙청사(별관 1~3층), 과천청사(1동 1층), 대전청사에 설치되는 합동브리핑센터 내부에는 브리핑실(중앙청사 4개, 과천청사 4개)과 송고실(중앙과 과천청사 각 1개), 취재지원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주요 대선 주자들은 소속 정파와 관계없이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를 비판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고, 각 정당의 대변인들도 논평 등을 통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언론학자들도 정부의 이번 조치를 비판했고, 특히 정부가 일방적으로 취재시스템을 결정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재광주광양향우회 정기총회 및 회합의 한마당

옛그제 피었던 매화꽃이 벌써 알알이 영글어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7년 『재광주광양향우회 정기총회 및 회합의 한마당』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광주에 살고 있는 모든 향우들께서 뜻 깊은 축제의 행사에 참석해 정겨운 덕담도 나누시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07년 6월 2일(토) 10:00~16:00
- 장 소 : 광주 남구 서동 구동체육관
- 회 비 : 참가 가족당 1만원(연회비)
- 연락처 : 011-603-9150 (이통채) 019-605-3298 (전직박)

재광주광양향우회 회장 허재호

우입학원 장학 57년 역사와 전통

광주의 새로운 명문종합대학교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상당홍보실 (062)970-0114 ▶T.(062)970-0001~9

세계로 앞서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c.ac.kr

▶상당홍보실 1588-5051 ▶T.(061)360-5000

BORYUNG 보령제약

목이 칼칼할 땐, 용각산 쿨!

황사, 매연, 미세먼지로 인해 목이 답답하고 칼칼할 땐 용각산 쿨입니다. 물 없이 먹는 과일, 용각산 쿨은 칼칼한 목에 직접 작용합니다.

칼칼한 목을 시원하게~용각산 쿨!

기판내부에서의 점액 분비 증가와 섬모운동 촉진으로 가래를 제거해줍니다.
신뜻하고 시원한 복숭아향과 민트향, 두가지 향이 있습니다.
물 없이 먹는 과일이라 휴대가 간편하고 먹기 편합니다.

용각산 쿨 TV-CF